

김달삼의 월북

이제 김달삼의 월북을 다룰 차례다.

김달삼은 해주대회 보고서를 모슬포 이종우의 집에서 작성했다고 한다. 이종우는 김달삼과 학교 시절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로 1947년 4·1 시위 이후 김달삼과 함께 도당으로 올라갔다. 2월 말경 신춘회의에는 참석하였다. 그러나 4·3 발발 전후 조천면 선흘에서 사살당했다. 시신은 이삼룡의 밭에 수습되었다.⁷⁸⁴⁾



김달삼의 막역지우 이종우 집 터. 서귀포시 하모중앙로 67번길. 지금은 일번지 가든 앞 주차장으로 변했다.